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 정 활 동 보 도

2021년 5월 7일
(금요일)

서울 강북신문 2021년 5월 3일(월), 5면

강북구의회 의원들은4월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결정 규탄대회 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 촉구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지난 4월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규탄 대회에서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는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으로, 모든 국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는 공존의 공간이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 대서양을 포함한 모든 해양의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며, 해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야기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30만 구민의 뜻을 모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규탄 대회는 이용균 의장과 이정식 부의장의 선창 후, 전체 의원의 3회 복창으로 진행됐으며, 이용균 의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선창과 함께 의원들이 "규탄한다"를 3회 복창하며 진행됐고, 이정식 부의장은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선창과 의원들의 "철회하라" 3회 복창이 이어졌다.

이용균 의장은 규탄대회를 마치며 "강북구의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 철회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불공정 및 불합리한 결정들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東北日報 동북일보 2021년 5월 3일(월), 4면

강북구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대회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자 중대범죄 행위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에서 강북구의회 의원들이 함께한 모습.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지난 4월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규탄 대회에서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는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으로, 모든 국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는 공존의 공간이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 대서양을 포함한 모든 해양의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며, 해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야기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30만 구민의 뜻을 모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규탄 대회는 이용균 의장과 이정식 부의장의 선창 후, 전체 의원의 3회 복창으로 진행됐으며, 이용균 의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선창과 의원들의 "규탄한다" 3회 복창, 이정식 부의장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선창과 의원들의 "철회하라" 3회 복창이 이어졌다. 이용균 의장은 규탄대회를 마치며 "강북구의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 철회되는 날까지 함께 할 것" 이라며, "앞으로도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불공정 및 불합리한 결정들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북부신문 2021년 5월 6일(목), 5면

"일본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즉각 철회하라"

강북구의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

▲ 강북구의원들이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지난 4월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가졌다.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는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으로, 모든 국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는 공존의 공간이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 대서양을 포함한 모든 해양의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며, 해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야기할 중대한 범죄행위다. 이에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30만 구민의 뜻을 모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규탄 대회는 이용균 의장과 이정식 부의장의 선창 후 전체 의원의 3회 복창으로 진행됐다.

이용균 의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선창과 의원들의 "규탄한다" 3회 복창, 이정식 부의장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는 선창과 의원들의 "철회하라" 3회 복창이 이어졌다.

이용균 의장은 "강북구의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 철회되는 날까지 국민들과 함께 하겠다"며, "앞으로도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불공정 및 불합리한 결정들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포스트신문 2021년 5월 3일(월), 3면

강북구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대회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 철회되는 날까지 함께 할 것"

강북구의회는 지난 4월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지난 4월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이번 규탄 대회에서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는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으로, 모든 국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는 공존의 공간이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 대서양을 포함한 모든 해양의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며, 해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야기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30만 구민의 뜻을 모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규탄 대회는 이용균 의장과 이정식 부의장의 선창 후, 전체 의원의 3회 복창으로 진행됐으며, 이용균 의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선창과 의원들의 "규탄한다" 3회 복창, 이정식 부의장의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선창과 의원들의 "철회하라" 3회 복창이 이어졌다.

이용균 의장은 규탄대회를 마치며 "강북구의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 철회되는 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불공정 및 불합리한 결정들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프리신문 2021년 5월 4일(화), 6면

강북구의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규탄대회

강북구의회(의장 이용균)는 지난달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규탄 대회에서 강북구의원들은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한 주변 국가와의 충분한 협의없이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했다. 바다는 전 인류가 함께 공유하는 삶의 터전으로, 모든 국가가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존해야 하는 공존의 공간이다. 일본 정부가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바다뿐만 아니라 태평양, 대서양을 포함한 모든 해양의 재난으로 이어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전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는 파괴행위이며, 해산물에 대한 불신으로 수산업 전반에 큰 피해를 야기할 중대한 범죄행위이다"며 "이에 우리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30만 구민의 뜻을 모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규탄 대회는 이용균 의장과 이정식 부의장의 선창 후, 전체 의원의 3회 복창으로 진행됐으며, 이용균 의장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선창과 의원들의 "규탄한다" 3회 복창, 이정식 부의장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선창과 의원들의 "철회하라" 3회 복창이 이어졌다.

이용균 의장은 규탄대회를 마치며 "강북구의회는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이 철회되는 날까지 함께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강북구의회 의원들은 불공정 및 불합리한 결정들에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영일 기자